

전남, 목재펠릿 13만톤 공장 건설

전라남도는 7월21일 여수화력발전처에서 산림바이오매스 보급과 이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라남도, 산림청, 한국남동발전은 협약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는 목재펠릿 이용 확대를 위한 행정지원과 해외 목질 바이오매스 개발 및 에너지화, 국내 목질 바이오매스 에너지림 조성 및 운영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국내에 목재펠릿 생산시설을 갖춰 향후 대규모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발전기업에 목재펠릿을 공급할 방침이다.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업들은 2012년부터 시행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사용제도에 따라 총발전량의 2%를 목재펠릿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전력을 생산해야 한다.

발전기업들이 검토중인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조력, 지열, 연료전지 등으로 다양하지만 목재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이 원료 공급의 간편성, 시설 개조를 위한 초기투자의 경제성 등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다.

의무사용제도가 시행되면 전남지역에는 화순 이양 농공단지에 입주한 SK임업과 광양항 배후부지 대현우드에서 생산되는 목재펠릿을 13만톤 공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학저널 2011/07/22>